단순한 폴리리듬을 이용한 좀 더 복잡한 폴리리듬의 연주법

김현종
여주대학 실용음악과
e-mail:bonzurm@yahoo.com

The Concept of Playing Complex Polyrhythm by Using Simple Polyrhythmic Idea

Hyounjong Kim
Dept. of Popular Music, Yeoju Institute of Technology

요 약

단순한 폴리리듬은 이제 더 이상 폴리리듬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또 쉽게 연주되고 있지만, 좀 더 복잡한 폴리리듬은 그 접근부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기가 쉽다. 예를 들어 '9 against 2'의 경우를 보면, 이것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한 박자를 9개로 나누어 연주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하므로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나 '3 against 2'를 이용하여 생각해 보면 좀 더 쉬운 연주법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또 다른 복잡한 폴리리듬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1. 서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폴리리듬은 16분 음표나 8분 셋잇단음표를 이용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3 against ? 이나 4 against ? 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폴리리듬은 아무리 물음표(?) 자리에 높은 숫자가 와도 일단 접근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음표를 묶는 숫자의 문제이지 음표 자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의 숫자가 5 나 7 등이 오면 다섯잇단음표나 일곱잇단음표로 접근해야 하므로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에서 첫 번째로 다루려고 하는 '9 against 2'도 마찬가지로 그 시작이 먼저 아홉잇단음표이어야 하므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9 against 2'를 음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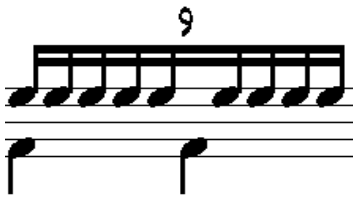

그림 1-1

즉 '9 against 2'는 기존의 2 박자를 동일한 길이의 9개 음표로 나누어 연주하는 폴리리듬으로 한 박자를 아홉 개의 음표(32분 아홉잇단음표)로 나눈 후 다시 2개씩 묶어서 연주해야 하는 것으로 이론상으론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아홉잇단음표로 연주하는 것이 불편한 연주자들은 이 아이디어로의 접근이 불가능한 듯 보인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아홉잇단음표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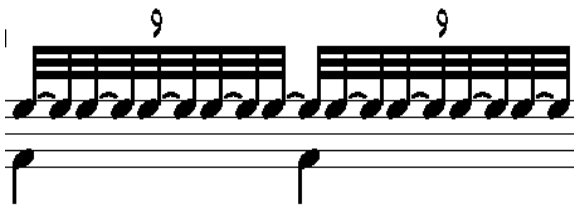

그림 1-2

2. 9 against 2

'9 against 2'를 아홉잇단음표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연주하기 위해서는 '9 against 2'와 다른 간단한

폴리리듬을 이용해야 하는데 우리는 연관된 폴리리듬으로 '3 against 2'를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왜냐하면 9는 3의 배수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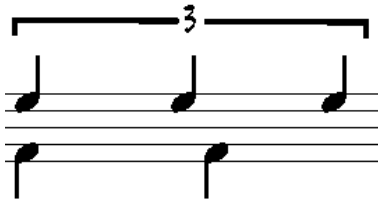

그림 2-1

위의 그림에서 보면 '3 against2'에서 기존의 2박자를 카운트하며 3을 연주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 우리가 모두 이렇게 생각하며 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2를 유지하며 3을 새로운 펄스로 생각하고 1, 2, 3로 카운트하는 것은 약간의 연습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것도 기본적인 리듬연습이 되어 있는 연주자라면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곧 익숙하게 새로운 3의 느낌을 카운트하며 연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때에 중요한 것은 기존의 2의 펄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예를 들면 발 또는 손으로) 3을 카운트하는 데에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3 against 2'를 연주할 때에는 2를 카운트하며 8분 셋잇단음표를 2개씩 묶어서 연주한다. 그러나 좀 더 발전된 연주에 있어서는 같은 '3 against 2'이나 2를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형성된 펄스인 3을 카운트하면서도 연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경우가 가능해지면 다음과 같이 새로운 펄스인 3을 다시 세분하여 연주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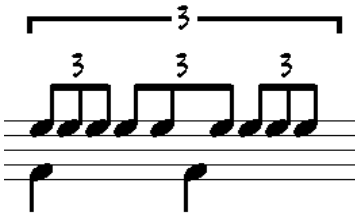

그림 2-2

이 연주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새로운 펄스인 3을 다시 셋잇단음표로 나누어 카운트하는 것으로, 이때 중요한 것은 여전히 기존의 2의 펄스를 다른 한 부분(다른 손이나 발 또는 그 외의 또 다른 신체부분)으로 동시에 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홉잇단음표를 연주하기 위해 1, 2, 3, 4, 5, 6, 7, 8, 9으로 카운트하는 것(또는 이와 비슷한 어떠한 조합의 새로운 카운트법이라도)이 익숙지 않은 연주자에게도 기존의 셋잇단음표를 카운트하는 방법만을 이용해서 새로운 아홉을 연주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유익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법 즉, 간단한 폴리리듬인 '3 against 2'를 이용한 방법으로 '9 against 2'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한 단계 더 깊이 접근해보면, 이 새로운 펄스인 3을 16분 다섯잇단음표로 카운트하거나 16분 일곱잇단음표로 카운트하면서 연주할 수 있게 된다면 더더욱 복잡한 폴리리듬을 쉽게 연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15 against 2'나 '21 against 2'가 된다.

3. 9 against 4

좀 더 복잡한 폴리리듬의 예로 '9 against 4'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위에서 얻은 '9 against 2'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이것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일단 '9 against 2'를 충분히 연습하여 익숙해져야 한다. 그런 후에 '9 against 2'를 연속으로 2번 연주하며 이것을 다시 그림 3-1과 같이 2개씩 묶어 연주하면 그 결과는 '9 against 4'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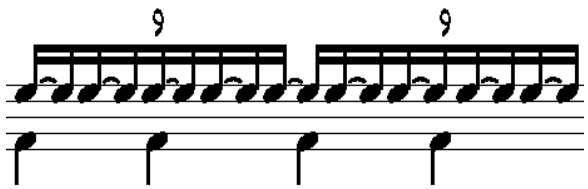

그림 3-1

즉, 기존의 펄스를 둘 씩 2번 연주하였으므로 4박자가 새로운 기준이 되는 기존 펄스가 되며 이 시간동안 9를 2개씩 묶은 새로운 펄스 9(결과적으론 8분 아홉잇단음표가 된다)가 연주되므로 우리가 원하는 '9 against 4'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2개씩 묶는 방법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때에 그저 2개씩 묶은 것을 카운트하며 하나의 지체(Limb)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로 자주 사용하는 연주방법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임을 본 연구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즉 타악기 연주자인 경우에는 오른손/왼손을 번갈아 연주하는 연주법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연주하고자 한다. 이렇게 오른손/왼손을 번갈아 가며 연주할 때, 일정하게 오른손(왼손잡이인 경우나 왼손을 먼저 연주하게 되면 왼손)만을 카운트하면 쉽게 새로운 9의 펄스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건반 연주자인 경우에는 자주 사용하는 두 손가락을 번갈아 연주하며 먼저 시작한 손가락만을 카운트하는 방법으로, 기타 연주자인 경우에는 아래/위(down/up)의 피킹(picking)을 번갈아 연주하며 먼저 시작한 피킹에 카운트를 하는 방법으로 연주하면 위와 같은 결과를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단순한 예로 우리는 각자 악기의 특성에 따라 또는 연주자의 상황에 따라 이를 이용한 혁신적인 연습방법을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이다.

4. 9 against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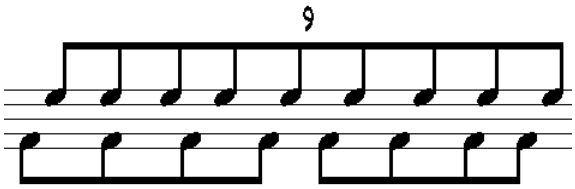

그림 4-1

위의 그림과 같이 여기에서는 아주 더 복잡한 '9 against 8'까지 생각해 보았다. 폴리리듬 중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첫째, 그 숫자들이 자주 연주하지 않는 수이며 둘째, 숫자가 큰 수이고 셋째, 그 두 숫자들의 차이가 적은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4와 5, 5와 6, 6과 7등이 그렇다. 이 경우에도 9나 8은 숫자가 크고 비슷하여 더더욱 연주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위에서 얻은 연주법을 이용한다면 쉽게 연주할 수 있다. '9 against 4'의 경우에서 우리는 자주 연주하는 연주자의 습관을 이용하였다. 즉 두 손을 번갈아 연주하거나 아래/위의 피킹을 이용하는 식이다. '9 against 8'의 경우에는 어떠한 4개의 묶음을 반복적으로 연주하는 것, 이것을 이용하였다. 타악기 연주자의 경우는 오른손/왼손을 번갈아 연주하며 혹은 둘 씩(오른손 2번, 왼손 2번, 전문적인 용어로는 double stroke)등의 연주 방법(drum rudiment등의)을 평소에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악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연주자마다 각자의 악기에 맞는 4의 조합을 연주하는 연주법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이용하여 4의 조합 중 맨 처음 음표를 강조하여 카운트하면 새로운 9의 펄스를 얻을 수 있고 이것은 기존의 '9 against 2'의 2가 4번 반복되는 동안 얻은 결과이므로 '9 against 8'의 폴리리듬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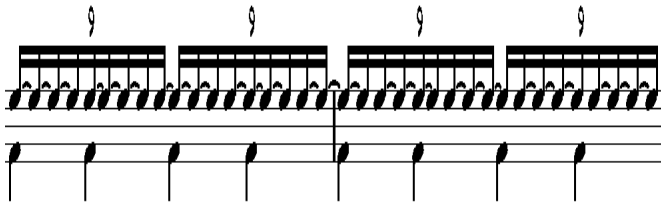

그림 4-2

이것은 결국 그림4-1의 결과와 같은 것으로 그림4-1은 4/4박자 한 마디에서 표현하기 위하여 8분 음표 펄스를 기준으로 하였다면, 그림4-2는 4/4박자 2마디를 이용하여 표현한 것으로 4분 음표 8개가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단순한 폴리리듬인 '3 against 2'를 이용하여 '9 against 2', '9 against 4', '9 against 8'을 연주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주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단순한 폴리리듬의 적용에 있어서 기존의 펄스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는 능력을 터득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3 against 2'를 연주할 때에 2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3을 새로운 기준으로 생각하며 연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때에 이것을 순간적으로 '2 against 3' 즉, 기존의 펄스를 유지하던 부분을 거꾸로 새로운 펄스로 인식하고 새로운 펄스를 담당했던 부분을 기존의 펄스로 바꾸어 생각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다. 그러나 단순히 이런 적용은 그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왜냐하면 새로운 3의 펄스를 카운트하면서도 여전히 기준은 2가 되어야 3의 변화에도 2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2의 기준 하에서 3을 9로 변화시키려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9 against 2′ 의 관점에서의 연습방법도 알고 연습해야 서로의 상승효과(synergy)가 있게 된다. 즉, 처음 나눈 32분 아홉잇단음표 중 다섯 번째 음표와 여섯 번째 음표사이에 기존의 2의 펄스 중 2번째가 연주됨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처음부터 접근이 어려웠던 것이나 '3 against 2′를 이용하여 일단 접근을 하고 난 후에는 다시 '9 against 2′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 이 두 가지의 관점이 서로를 보완하여 새로운 폴리리듬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는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좀 더 복잡한 폴리리듬들을 연습할 수 있게 되는데, 만약 '9 against 2′의 연속적인 연주에 있어서 그 각각의 음표(16분 아홉잇단음표)들을 5 혹은 7로 묶어서 그림4-2에서 보여준 방식으로 연주한다면 '9 against 10′, '9 against 5′ 혹은 '9 against 14′, '9 against 7′등의 폴리리듬도 연주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Peter Magadini, “Polyrhythms”, 2nd edition, Hal-Leonard Corporation, 1993

[2] Gary Chaffee, “Rhythm & Meter Patterns”, Warner Bros. Publications, 1976

[3] Gary Chaffee, “Sticking Patterns”, Warner Bros. Publications, 1976

[4] Ralph Humphrey, “Even In The Odds”, C.L. Barnhouse Company, 1980

[5] Gary Chaffee, “The Time Functioning Patterns”, Warner Bros. Publications, pp. 44-52, 1976

[6] Phil Maturano, "Latin Soloing for Drumset", Hal-Leonard Corporation, p20, 2005

[7] Gavin Harrison, “Rhythmic Perspectives”, Alfred Publishing Co., Inc, 1999

[8] Ed Roscetti, “Odd Meters”, Hal-Leonard Corporation, 2000

[9] Fred Dinkins, It's About Time, Warner Bros. Publications, 2003

[10] Joe Porcaro, "Joe Porcaro's Drum Set Method", JOPO Music Publications, 1983

[11] Chuck Silverman, "Afro-Caribbean Rhythms for the Drum Set", Warner Bros. Publications, pp. 35-48, 1991

[12] Marc Atkinson, The UnReel Drum Book, Warner Bros. Publications, 2003

[13] Gavin Harrison, “Rhythmic Illusions”, Alfred Publishing Co., Inc, 1999

[14] Virgil Donati, “Virgil Donati”, Alfred Publishing Co., Inc, 2000

[15] Marco Minnemann, "Extreme Interdependence", Alfred Publishing Co., Inc, 2001

[16] Marco Minnemann, "Marco Minnemann", Warner Bros. Publications, 2004